

지역 매아리

생업에 불편 해소 역량 집중

생고를 시장, 맛에 味치고 멋에 美치다

정읍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기 정읍시의회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된 의정비 심의위원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정읍시 의원 의정비를 시 재정여건과 주민의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불가항력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금년 10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4년 동안(2019년~2022년) 적용할 의정비인 월정수당을 올해 12월까지 결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식 후 1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경찰서, 피해자 심리치료 주력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범죄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해 청 위기 개입 상담관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심리케어 및 상담 등 보호활동을 펼치는 등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심리적 지원은 범죄 발생 직후 놀랐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라포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사건과 피해자의 니즈를 정확 파악 및 언행에도 신경을 써서 피해자와 신뢰감 형성 등 피해자 심리치료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정성을 다해 신경써주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진다"며 "피해를 입고 정말 막막했었는데 경찰에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은 물론 임시숙소, 신변 보호 및 스마트워치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범죄예방 민관이나 중요한 피해자보호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정에 맞는 피해자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두 번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도록 각 과에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지역특성·주민의견 반영 해양수산분야 특화 규제개혁 박차

부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어업종사 주민이 많은 뿐 아니라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특성 및 여건을 감안해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해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부안군은 관계공무원들이 어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어업인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금 당장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해양수산분야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선정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개선의 필요요청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설명,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곰소만 내측 조업금지구역 해제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긍정적 수용 입장을 이끌어 냈으며 나머지 과제도 현재 관련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어서 중앙정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부

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규제개혁과제 조정회의가 열릴 계획이며 부안군은 이번 조정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중점 부각시켜 해양수산분야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에 주민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심원면 공산마을(활피)이 산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에 가을의 상징인 국화를 심어 아름다운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공산저수지 주변을 국화 5만송이로 수놓았다.

'국화향 가득한 공산저수지에 놀러오세요'

고창군 심원면 공산마을 '활피 국화축제' 열려... 색소폰 연주·토코쇼 등 다채

고창군 심원면 공산마을 주민이대성(62)씨가 정감어린 마을조성과 아름답고 깨끗한 공산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국화를 식재해 늦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심원면 공산마을(활피)은 산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에 가을의 상징인 국화를 심어 아름다운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공산저수지 주변을 국화 5만송이로 수놓았다.

공산저수지 주변에 가득 심어진 국화를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27일 '고창 활

피국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고창 활피국화축제'는 유기상 군수와 기관사회단체장, 주민과 관광객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색소폰 연주, 시와 함께하는 토코쇼 등 행사가 진행됐다.

축제를 주관한 이대성씨는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고창 활피국화축제'는 마을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정관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준비한 일이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기상 군수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함께 만드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으로의 위상을 높여가고 더욱 아름다운 심원면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화합과 적극적인 참여는 농어촌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내달 2일 웰빙푸드&아트 페스티벌

100년의 가가와 웰빙머거리가 만나는 즐거운 축제가 정읍생고를시장에서 열린다.

생고를시장상인회(회장 고광호)와 정읍생고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정현우)은 오는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생고를시장 앞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정읍생고를 웰빙푸드&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첫 번째를 맞는 올해 정읍생고를 웰빙푸드&아트 페스티벌에서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생고를시장의 먹거리를 선보이는 축제로 기획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제장에는 웰빙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시장을 찾는 남녀노소 고객이

즐거워 미식(美食)투어를 즐길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상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며 "특히 40~60대 중·장년층 고객에게는 전통시장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오셔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개막 축하쇼를 비롯해 히든싱어 퍼레이드, 생고를 콘서트 등 축제에 흥을 더할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호 생고를시장 상인회장은 "재미있고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정읍시민들과 생고를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의 추억과 정겨움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열어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9일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위원장 이동준)를 개최하여 지역회의 건의사업 98건 23억원의 사업을 최종 의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정읍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전체 심의위원회에 앞서 지난 주에 시민위원회는 각각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의 회의

를 갖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날 상정된 사업은 23개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무부서에서 현지 확인과 검토를 거쳐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주 가결된 사업안에 대해 전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하였으며, 시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핫플레이스 '슬지제빵소', 홈쇼핑 인기 만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추천으로 지난 2016년 전북농업기술원 주최 농식품가공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슬지제빵소(진서면 소재)가 2017년 8월 정식 오픈한 이래 부안지역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산원료만을 고집하여 우리밀 오색편방을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을 두루 섭렵해나가고 있는 슬지제빵소는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동안 홈쇼핑을 통해 드디어 홈쇼핑에 진출하였다.

홈쇼핑이 전국 지자체와 함께하는 대표적 판로지원 사업인 '일사천리' 프로그램 편성으로 지역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홈쇼핑 진출은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의 홈쇼핑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제품구성은 오색편방(우리밀, 호박, 빵인, 오디, 흑미) 5개를 1봉지



를 1세트로 하여 6세트를 기본으로 32,900원에 판매했다. 타제품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구성되었지만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과시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